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효도하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

고 갑니다.” “저도 조상의 산소에 별초하고 갑니다” “하신 일이 같은 조상에 효도하는 일이구먼요”

“어르신은 올해 연세가 몇 세입니까?” “83세입니다” “71세인 저도 예초기로 별초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어르신은 아주 힘드셨지요?” “저는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예초기로 힘든지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까?”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몽탄면 사천리입니다” “저는 고향이 몽탄면 내리 남천입니다.” “사천리가 고향이시다면 혹시 정기연 선생님을 아십니까?” “제가 정기연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 서경욱입니다”라며 정중하게 절을 하고 필자를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960년대 필자가 몽탄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6학년 때 담임한 제자 서경욱을 56년 만에 만난 것이다. 그것도 두 사람이 다 조상의 산소에 별초하고 가는 효성스러운 일을 하고 가는 작업복 차림의 만남이다. “선생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썼으니 명함에 있는 사진으로 보시게” 하며 사진이 들어 있는 명함을 주었더니 명함의 사진을 보고 감격하며 필자를 껴안고 울었다.

몽탄역에 오후 6시 51분 막차가 도착해 승차한 후 자리를 같이하며 경욱이의 지난날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서경욱은 목포에 있

는 중학교에 진학했으며 부친의 직장 따라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중 부친이 46세로 별세했으며 제대 후 경찰시험에 합격해 경감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제2의 직장을 선택해 근무한다 했다.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와서 산소에 별초하고 가는 효성스러운 제자가 자랑스러웠다.

경욱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필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필자는 서경욱이 졸업한 65년도에 현경초교로 전근했고, 70년도에 광주시로 전근했으며 광주에서 10년 근무를 마치고 80년도에 신안군으로, 거기에서 교감 승진해 84년도에 영암군으로, 완도군으로, 나주시로 나주시에서 교장으로 승진했다. 여수시 소라서초교 교장으로 여수시에서 영암군 신북읍, 신북초교로 거기에서 곡성오산초교로 전근해 2001년에 43년의 교직을 마치고 정년 퇴임했으며, 그 후 호남 직업학교에 입학해 6년간 직업교육을 받았다.

실버넷뉴스를 비롯한 전광일보, 전남도민일보, 대한일보, 전광투데이 광주전남 뉴스 기자 논설위원 주필로 글을 쓰면서 현재는 연간 200여 편의 칼럼을 쓰고 있으며, 일하는 즐거움으로 고향 몽탄면에 가서 유실수를 가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리에서 하차해 인근에 있

는 전주식당으로 갔다. 식당의 전문 메뉴인 소머리 국밥 주문을 해 놓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로 스승과 제자는 대면했다. “정기연 담임 선생님 반갑습니다” “경욱아, 반갑다!” 서경욱은 필자를 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초등학교 때도 키가 컸는데 어른이 돼서도 키가 크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식당 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식객으로 다녀간 표지로 사인을 했는데 김대중, 나훈아, 황석영 등 많은 사람의 사인이 벽을 메웠다.

음식 주문을 해 놓고 경욱은 잠깐 다녀올 데가 있다며 밖에 나갔다가 와서 주문한 소머리 국밥을 같이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스승과 제자가 만나 먹는 음식이다. 식사가 끝난 후 경욱은 밤 9시 KTX 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먼저 선생님을 전송한다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헤어졌다. 경욱은 이별의 악수를 하며 내 손에 구겨진 돈을 쥐어 주었다. “카드만 있고 현찰이 없어 현찰 돈을 빼려고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님께 대접을 못 해 선물값으로 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선생님!”

지하철 열차를 타고 가면서 손에 든 돈을 펴 보니 1만 원 권 지폐가 열 장 들어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코로나 19시대에 효도하는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자랑스러운 보람이었다.

독자기고

가을철 축사화재 예방이 우선

이재욱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낮에는 아직까지는 덥지만 저녁과 새벽에는 쌀쌀한 가을이다. 그래서 축사 내 보온시설 설치와 난방시설을 가동을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축사 시설은 볏짚 및 보온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주변에 다량으로 적재돼 있으며 구조 또한 경량철골조 구조로 부직포 등으로 축사 전체를 덮는다든지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돼 화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축사는 대부분 산속이나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화재발견이 어려워 119신고가 늦고, 소방차의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됨은 물론 진입로가 협소한 농로로 돼 있어 대형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가 원인이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와 노후화된 전선을 점검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노후화된 전선은 발견 즉시 교체해야 한다. 배전

반의 먼지와 거미줄은 수시로 제거해야 하고 아크차단기를 사용 설치를 권장한다.

둘째, 축사는 크고 작은 보수공사 등으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은 편이다. 작업 시 주위의 가연물을 사전 제거하고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근거리 소화기(2대 이상)나 소화수를 비치해 유사 시를 대비해야 한다.

셋째, 축사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각 중 바람에 의해 불티가 벗겨 등 가연물이 날릴 수 있기에 주위에서의 소각행위도 관계인이 나서서 방지해야 한다.

넷째, 도로 입구에는 축사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신속하게 소방차의 현장 도착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수수를 필히 확보해 주고, 특히 고압분무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는 화재 발생 시 고압분무기를 활용해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초기에 화재진압을 해 재산 보호에 앞장서야겠다.

축산업은 많은 자본금이 투입된 농민들의 소득원이며 재산이다. 소중한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축사관계자의 자율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힘내라 광주시민, 힘내라 광주경제

마스크 외출자제 손씻기

← 2m →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를 이깁니다

건강재난지원금 대한민국의정부 광주광역시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바람, 블루투어를 실현합니다.

블루투어는 저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은 관광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관광생태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남해안은 해양지향적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의 발판이며, 영호남 지역화합을 이룰 공간으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